



◇ 지난 12월 25일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효당 스님의 탄신 100주년 기념제인 '한국 차도 문화 예술제'가 열렸다. 사진은 스승과 제자가 함께 차를 마시며 심신을 수련한다는 뜻의 '공수선차' 시연 모습.

현대 차계의 중흥조로 일컬어지는 효당 스님의 탄신 100주년을 한해 앞두고, 지난 12월 25일 진주에서 효당 스님의 차도 정신을 기리는 문화예술제가 열렸다. 이날,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현대 한국 차도의 발전에 큰 족적을 남긴 어른, 효당 스님의 탄신을 기뻐하는 차인들의 발걸음으로 분주했다.

99년 전, '지혜(般若)의 이슬(露)'로 이 땅에 맺혔던 효당 최법술 스님의 종지를 울곧게 이어가고 있는 '반야로 차도문화원'은 장

중지 받은 '반야로 차도문화원' 주최 예술로 승화시킨 선차 수행 선보여 100주년 앞둔 다양한 행사 계획

채원화' 주최로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한국 차도 문화 예술제'에서는 차 마시는 일상이 예술의 경지로 승화돼 무대에서 빛을 발했다.

행사에 앞서 채원화 원장은 인사말에서

"현대 차도를 부흥시킨 효당 스님의 차도를 새로운 예술 장르로 격상시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내년으로 다가온 스님의 탄신 100주년에 앞서 차인들과 함께 스님의 뜻을 기리고 싶었다"고 이날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막이 오르고 효당 스님이 남긴 차도 정신을 부흥시키기 위한 반야로 차도문화원 차인들의 몸짓이 시작됐다. 효당가 차살림의 기본 강령이라 할 수 있는 '차도무문(茶道無門)'의 정신이 이날 선보인 공수선차, 공빈선차, 말차시연, 헌공다례, 차춤, 독수선차 등에서 오롯이 되살아났다. 차생활을 문 없는 문을 통과하여 들어서는 일이자 자신을 찾아 떠나는 먼 여행길로 비유한 효당 스님의 차도는 손님을 맞아 차를 마시는 행위, 홀로 차 마시는 행위 등 일체의 차생활을 통한 내면의 수련 즉, 선차수행(禪茶修行)으로 귀결시켰다.

이날 무대에 올러진 공연 또한 채 원장과 문도들이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차 의식을 국악과 어우러진 공연 장르로 발전시킨 것으로, 선차수행의 전 과정을 보여주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차인들의 호응 속에 '한국 차도 문화 예술제'를 마친 채 원장은 "효당 스님의 탄신 일인 7월 13일을 전후해서 효당 스님 문집 발간, 학술제, 효당가 차법 시연, 스님 유품 전시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 효당가 차살림살이를 널리 알릴 것"이라고 내년 100주년을 앞둔 기대를 밝혔다.

■ 공수선차(共修禪茶)

채원화 선생 등 문도 30여명이 선보인 '공수선차'는 고요한 차실에서 화롯불에 찻물끓는 소리를 들으며 스승과 문도들이 법도에 맞게 일차를 마시며 함께 심신을 수련하는 선차로 차선일체의 세계를 선보였다.

■ 공빈선차(共賓禪茶)

정성껏 차를 달여 객을 대접하며 함께 차를 마시며 수련하는 선차로 선보인 공빈선차는 차를 마시며 주객(主客)의 경계를 허물었다.

■ 말차시연

스승과 문도들이 함께 찻사발에 가루차를 내려 마시는 선차수련으로 대숲을 지나는 환구를 무대배경에 어우러진 '별과 시'라는 가야금 연주가 차인들을 매료시켰다.

■ 헌공다례

차를 달여 올리며 밝아오는 새해의 희망을 기원하는 행차의식인 헌공다례는 어두운 무대에 밝힌 촛불과 일렬로 한다하는 문도들의 무거운 발걸음이 무대를 압도했다.

■ 독수선차(獨修禪茶)

이날 무대의 하이라이트. 차실에 홀로 앉아 차를 달여 마시며 깊은 차선삼매에 들어 유연회해(遊天海舞)하는 선차수행으로 차를 통해 내면합일의 경지를 드러낸 무대로 호응을 얻었다.

진주=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차문화 교육현장

원광디지털대학교 차문화경영학과

전통에 기반을 둔 전문가 양성

올해 처음 개설된 원광디지털대학교(총장 성제환) 차문화경영학과는 모든 수업이 인터넷으로 이루어지는 '사이버 대학'이다. 차 문화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4년제 대학으로 국내 최초다.

이 곳에서는 우리 차의 뿌리와 역사, 차 마시는 예절, 차의 유통과 경

영 등을 교양과정으로 배운 뒤 이를 바탕으로 전통 한복, 음식은 물론 판소리, 선명상까지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전통 문화 전문가를 양성하게 된다.



국내 최초 4년제 차학과 교육센터 운영 효과 배가

성제환 총장은 "우리 차문화는 고유한 역사와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하다"며 "차의 자연과학과 인문학의 기본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행사 기획 및 교육과 문화

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차문화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차학과를 개설했다"고 말한다.

우리의 전통에 기반을 둔 문화행사 기획 전문가와 차 산업 경영자를 키워내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다.

원광디지털대는 인터넷으로만 수업을 받아 자칫 무미건조해질 수 있는 대학생활을 흥미롭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로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의 학습활동과 전문실습, 동아리 활동

을 지원하는 교육센터는 현재 서울과 부천, 광주, 익산에 운영중이며 오는 3월 광명에도 문을 열 예정이다. 또한 차문화경영학과 학생들은 전국 80여 곳의 다례원에서 다도교육을 받을 수 있다. 차문화경영학과를 졸업하면 전통차예절강사 사범

증과 선명상지도사 자격증, 생활예절강사 자격증을 비롯해 평생교육원의 교수 자격증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성 총장은 "교육센터와 다례원 등을 통해 교수와 학생들 간의 유대를 강화

하고 교과과정 외의 학생들의 의견도 반영할 예정이다"며 "다도교육과 차 문화 육성에 뜻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원광디지털대는 수능 성적이나 고등학교 내신 성적과 관계없이 고등학교 졸업자, 검정고시 합격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면 지원이 가능하다. 2004학년도 신입생 선발을 위한 원서접수를 특별전형은 이달 10일까지, 일반 전형은 30일 까지 인터넷 홈페이지(www.wdu.ac.kr)와 전화(1588-2854)로 받고 있다. 스님을 비롯한

성직자에게는 30%의 장학금 혜택이 주어진다.

여수경 기자



■ 효당 스님은?

77년 차도회 발족 · 독특한 제차법 전수
항일, 민족교육에 공 세운 불교 지도자

한국 근세 차도문화의 중흥조가 초의 스님이라면 한국 현대 차도의 중흥조가 바로 효당 스님이다.

그냥 좋아서 마시던 그만인 차생활을 도의 경지로 끌어올리는 차수행으로 승화시킨 스님은 1904년 경남 사천에서 태어나 13세에 다사사로 출가했다.

한국 최초의 체계적인 차도 개편서인 <한국의 차도> 저술했으며 77년 한국에서 최초로 차인들의 동호인 모임인 한국차도회를 발족시켜 한국차인회 결성의 모태를 마련했다. 특히, 스님만

의 독특한 정제차인 색과 향, 맛이 뛰어난 반야로 제차법을 전수시켰다.

'차 마시는 행위를 통해 미망에서 깨어나 사람노릇을 제대로 해야한다'고 강조한 효당 스님은 60여 년간 다사사에 주석하며 원효 스님의 사상과 교학 복원과 연구에 전념했으며 만해 스님과 함께 만당(萬黨)을 결성, 항일운동의 선봉에 서기도 했다.

차도무문(茶道無門)과 차도용심(茶道用心)에 바탕하는 선차수행을 확립한 효당 스님은 79년 76세로 입적할 때까지 대승불교적 실천으로 일관하며 차선삼매의 경지로 후학을 이끌었다.

녹음테이프 공부하는 太極四柱가 나왔다

(사주배우기가 너무 쉬워졌다)

중국 命理學을 완전 압도하는 새로운 太極四柱가 나왔다. 太極四柱는 이론이 간단명료해서 누구나 쉽게 배우고 속성으로 완성하며 자신있게 개입할 수 있다.

中國四柱인 命理學은 10년을 공부해도 끝이없고 올바른 판단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太極四柱는 배우기가 매우 쉽고 자상하며 간단명료해서 구체적이고 논리가 정연함으로서 차분하고 능소 능대한 강의는 들을수록 감명과 실감이 생생하다. 누구나 이해하고 터득하도록 실례를 들어 흥미 진진하게 설명하므로서 질문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녹음테이프를 하루 한시간씩 독학으로 2개월이면 완성하고 인간사상을 정확하게 판단한다.

20여년간 강의하고 연구개발한 太極四柱는 오판과 실수가 없다. 中國命理學과는 하늘과 땅 차이이다.

(안내서 무료 배포)

- 주문방법: 아래 계좌로 송금하시고 전화하면 즉시 배송에 드립니다.
- 테이프(14개)와 교재 代金 45만원
- ▶ 농협: 100080-56-022361 (손선영)
- ※ 스님 및 포교사 특별할인 (30만원)

學術團體 韓國陰陽學會中央會
(053) 324-2468 / 326-4585

釜山支部: (055) 384-2303 大邱支部: (053) 641-2334
龜尾支部: (054) 465-2642 慶南支部: 016-274-3170
慶北支部: (054) 553-5145

명리학 사상 가장 확실한 교과서인 "최신팔자명리학비결서" 소개

사주학 사상 그 누구도 사주학의 오해가 되는 <용신을 확실하게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놓지 못했던 것을 본서에서는 수년간 연구 검증된 계산법으로 그 방법을 제시해 놓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사주학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따라서, 본서의 이론을 습득하면 어떠한 사주이던 자신있게 상담에 임할수가 있습니다. 또한, 본서는 사주학을 운명추론학에서 심리학으로까지 발전시켜놓은 이론이기도 합니다.

- ◆ 본서의 주요내용 소개 ◆
- 복잡하고 애매한 명리학이론들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립시켜 놓았다는 점.
- 검증된 간단한 계산법으로 어떠한 사주이던 쉽게 <용신>을 찾을 수 있는 비결 공개(억부, 음양, 구조용신).
- 심리구조분석 및 8개궁위분석 비결 / 일간진입원리 응용비결 공개.
- 각종인연 분석에 관한 확실한 분석비결 공개(육친, 재물, 지위, 결혼인연 등).
- 사주원리에 대, 세운을 대입 해석 하는 비결 공개.

- ① 저 자: 오산 정대균
- ② 책규격: A-4별정지 620쪽
- ③ 가 격: 220,000원
- ④ 본서는 본 연구소에서만 판매하며 입금 후 전화주시면 택배로 발송함
- ⑤ 하나: 751-810033-42207
- 국민: 765202-04-019996
- 농협: 170202-56-037616
- 예금주: 정대균

www.sazoopalza.com
오산 팔자 심리학 연구소
☎ 02)831-0055(대표)
FAX 02)831-0058 / H · P 011-208-0051

간(肝) 이

건강애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도종 웅담과 비갈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①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다슬기와 구슬담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방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인다. 농축액은 60도 단위로 포장합니다.

②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완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완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열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일이 걸립니다. 한달 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055) 963-9583 · 상담문의: (055) 355-5626
산마를 토종 (민속농원)

謹 賀 新 年

대한불교법상종 총무원장 주석사찰

원적산 대성사

- 주 지 학 산
- 신도회장 문용덕
- 총 무 홍한묵
- 회주보살 김옥덕
- 신도일동
-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 외평리 산 66
TEL 031)882-9846

대한불교 조계종 운문사 · 운문승가대학

회 주 명 성
대 중 일 동
www.unmunsa.or.kr

■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1789
전화: (054) 372-8800 팩스: (054) 371-0359